

현대 한국천주교회와 구라사업의 전개



최 시 룡 교수

가톨릭의대 만성병연구소장

— 목 차 —

머 리 말

1. 한국 구라사업의 근세사와 나병의 치료
 2. 한국 천주교 구라기관의 활동
 - 1) 천주교구라회와 서 요셉 신부
 - 2) 가톨릭중앙의료원 만성병연구소
 - 3) 성 라자로 마울과 이경재 신부
 - 4) 성 프란치스코회와 성심인애병원
 - 5) 가톨릭피부관의원과 엠마 프라이징거 여사
 - 6) 성 베네딕도회 성심의원과 디오메데스 메펠트 수녀
 - 7) 다미안피부관의원과 테레사 캄비에 여사
 - 8) 대구 파티마병원
 - 9) 이리 성모의원과 송윤희 수녀
 3. 가톨릭 구라사업에 이바지한 사람들
 4. 한국가톨릭나사사업가연합회
 5. 한국과 서독구라협회
- 맺 음 말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구라사업이 시작된 것은 20세기초에 개신교 외국선교사들에 의한 것이 처음이었다. 즉, 1909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우월순 선교사(Rev. R.M. Wilson)는 전남 광주에, 1909년에 아빈(Ervin) 여사는 경남 동래군에, 그리고 1913년에는 미국 북장로교회 후렛차 선교사(Rev. A.G. Fletcher)가 대구에 각각 나요양소를 설치하여 이 논문은 한국천주교회창설 이백주년기념 한국교회사 논문집Ⅱ에 게재된 것입니다.

환자의 수용 보호에 나섰다. 이에 자극을 받은 당시 조선총독부는 1916년에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동양 최대의 나요양소 소록도 갱생원을 설립하여 모든 환자의 격리수용을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나환자의 격리 수용 정책은 우리 나라 정부 수립 후인 1950년대까지도 계속되었으며, 한때 보건사회부 예산의 50%가 이들 수용환자의 구호에 충당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나병의 치료제로는 대풍자유가 유일한 주치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8·15해방과 더불어 나병의 특효 주치제인 설펜제(sulfone drugs)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널리 사용케 됨으로써 불치의 천형병이라고 생각하던 나병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병관리는 수용치료에서 재가치료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천주교의 구라사업은 '구명을 위한 구라'라는 대명제 아래 8·15해방 후 우리 나라의 나병관리가 전환기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50년 가톨릭구제회 안(安) 캐롤 주교(Rev. Msgr. George Carroll, M.M.)가 경기도 시흥군에 성 라자로원을 설립, 또 1953년 전남 광주교구장 현(玄)하롤드 대주교(Most Rev. Harold Henry, S.S.C., D.D., L.L.D.)가 현애원을 설립한 것을 들 수 있다. 그후 1956년에 서요셉 신부(Rev. Joseph A. Sweeney M.M.)가 천주교구라회(Catholic Leprosy Service)를 창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조직되었다. 이때 서요셉 신부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이동진료반을 조직, 멀리는 거제도과 울릉도까지 남한 전지역을 누비며 전국 재가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1967년에 창립된 한국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는 우리 나라 등록 나환자 28,000여 명 중 상당수의 나환자들에게 구호와 양질의 의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천주교회의 구라주일 설정,각 구라기관의 후원회 조직 등은 우리 나라 나병 관리 사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 한국 구라사업의 근세사와 나병의 치료

우리 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것은 지금부터 100여년 전의 일이었으며 근대적인 나요양소가 설치된 것은 20세기 초에 외국선교사들에 의한 것이 처음이었다. 즉, 1909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우월순 선교사(Rev. R.M. Wilson)가 전남 광주 효천면에 소규모의 나환자를 수용 보호한 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나병원이며, 이것은 후일에 전남 여천군으로 옮겨져 오늘의 애양재활병원이 되었다.

또 1909년에 아빈(Ervin)여사는 경남 동래군 서면에 부산나병원을 설립하여 환자 30명을 격리 수용하였고, 1911년에는 대영구라회(British Leprosy Mission)의 조선지부에서 이를 경영하게 되었으며, 영국인 맥켄지 선교사(Rev. Meckenzie)가 원장을 맡아보았다. 그 후 부산상애원, 국립용호병원을 거쳐서 오늘의 용호농장이 되었다.

1913년에는 미국 북장로교회 후렛차 선교사(Rev. A.G. Fletcher)가 역시 대영구라회의 원조를 얻어 대구에 애락원을 창설하였으며, 이것이 오늘의 애락 보건병원이 되었다.

1916년 당시 조선총독부는 전남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에 자혜병원을 설립하고 그 후 2~3차에 걸쳐 시설을 확장하여 6,000여명의 환자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6년에는 소록도 갱생원으로, 1960년에는 소록도 나병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오늘날에는 2,300여 명을 격리 보호하는 국립나병원이 되었다.

근세에 있어서 나병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몇 가지 위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73년 한센(G.A. Hansen)에 의해 나병의 원인균인 나균(Mycobacterium leprae)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로 나병의 원인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이나 추측, 또는 미신적인 풍문들이 일

소되고 전염설이 대두되었으며, 오늘날 모든 학자는 이를 믿고 있다.

둘째, 1854년에 대풍자유(chaulmoograoil)가 나병의 주치약으로 서양의학에 소개되고, 1943년에는 설폰제(sulfone drugs)가 특효적인 주치제로서 사용된 이래 나병치료사상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즉, 불치의 천형병이라고 생각하던 나병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나병 관리는 환자의 수용치료에서 재가치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 나라는 8·15해방 전까지는 대풍자유에 의존하여 왔으며, 해방과 더불어 설폰제의 유도체인 promin, diasone 등이 소개되고, 1950년 초에는 1차약으로 알려져 있는 dapsone(DDS)이 도입되어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70년 초에는 clofazimine(Lamprene, B663), rifampicin 등 새로운 치료제가 소개되어 나병치료는 대풍자유요법에서 설폰요법으로, 또 화학요법 시대로 접어 들었다.

셋째, 현대의학 특히 외과학의 발전은 나병으로 인한 흉악한 외모와 기형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수술로써 교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8·15해방 후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상태에 있었으며, 그 틈을 타서 강제수용을 당하였던 요양소 일부 입원환자들이 그 곳을 탈출하여 숨어 살던 재가 나환자들과 어울려 거리를 방황하게 되었다. 또 이들은 자위책의 하나로 수명, 또는 수십 명이 도처에 집단부락을 형성하여 결식하는 근거지로 삼았다. 그리하여 서울을 비롯한 큰 도시는 이들의 문전결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나병의 치료는 대풍자유요법에만 의존하여 왔으며, 부득이 정부는 나환자의 강제 격리와 병행하여 집단부락의 환자들에게까지 구호양곡 등을 지원하여 부랑결식하는 환자들을 근절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의 구호를 위해 보건사회부는 그 예산의 50%를 소요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러한 시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런 시기에 가톨릭구제회 안 캐롤 주교(Rev. Msgr. George Carroll, M.M.)는 1950년 6월 서울과 인천 일대의 부랑결식하는 나환자들을 수

용 보호하기 위하여 오류동에 있는 성라자로원을 설립한 것이 우리 나라에서의 천주교 구라사업의 효시가 된 것이다. 그 후 6·25 남침으로 해산된 그들을 1951년 7월 현재의 물안산 기슭의 성라자로마을로 옮겨 살게 하였다. 또 1953년 3월에 광주교구장 하롤드 헨리 대주교 (Most Rev. Harold Henry, S.S.C., D.D., L.L.D.) 는 전남 나주군에 현애원이란 정착마을을 설립, 나환자들의 구호에 나섰다.

이와같이 정부의 시책이 나환자의 수용 구호에만 치중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국립나요양소가 증가하여 소록도 갱생원 외 부평 성계원, 경북 칠곡 애생원, 전북 익산 소생원, 그리고 상이용사를 위한 나요양소를 원주에 신설하여 대명구호병원이라 하였다. 그 후에도 부산 상애원이 국립요양소로 되었다. 종교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신교에서 경영해 온 전남의 애양원과 대구의 애락원, 천주교의 성라자로원, 그리고 국립에서 사설이 된 안동 성좌원 등이 모두 나환자의 수용시설이었다. 그외 많은 집단부락이 정부의 구호양곡 등 지원을 받았으나 이보다 많은 수의 재가 환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었다.

그러나 1956년 1월 서요셉 신부 (Rev. Joseph A. Sweeney, M.M.) 가 천주교구라회 (Catholic Leprosy Service) 를 창설, 이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많은 재가 환자들에게 치료와 구호가 베풀어졌으며, 때를 같이하여 정부에서도 한미재단 (American-Korean Foundation) 의 지원을 받아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나이동진료반을 평성, 파견하여 나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힘쓰게 되었고, 또 영국구라회 (British Leprosy Mission) 에서도 이동진료반을 조직하게 되었다.

1961년에는 전국 수용환자의 일제 검진이 실시되어 전염성이 없고 가동력 있는 나음성자는 기존 집단부락이나 새로 마련한 정착촌으로 이주시켰으며, 전염성이 있고 가동력 없는 양성 환자들은 국립 나요양소나 사립 불구 나환자 시설로 이주시키는 나환자들의 사회복지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환자의 집단부락은 정착촌으로 전환되었다.

또 1963년 4월부터는 정부와 WHO, UNICEF

의 공동사업으로 경북지역 월성군을 나병 표본조사 구역으로 선정하고 전주민의 일제 검진을 통해 나병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1969년 말 당시 우리 나라 나병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추산 환자수 ; 72,700명 (유병율 인구 1,000명당 2.6)

등록 환자수 ; 38,577명

국립나병원 입원 환자수 ; 5,494명

4개 불구 나환자 시설(애양재활병원, 대락보건병원, 성심인애병원, 성좌원) 입원 환자수 ; 1,901명

83개 정착촌 나음성자수 ; 16,770명

재가 환자수 ; 14,412명

연도별 신환자 발견 ; 1966년 : 768명, 1967년 : 2,403명, 1968년 : 3,111명, 1969년 : 1,673명

1970년 초부터는 소록도의 국립나병원 외의 국립기관은 모두 정착마을로 전환되고 정부 시책에 따라 나이동진료사업도 가톨릭기관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이 대한나관리협회로 이관되었다.

1979년 1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전국 등록 나환자 실태조사서에 의한 나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추산 환자수 ; 50,000명 (유병율 0.78)

등록 환자수 ; 28,295명

국립나병원 입원 환자수 ; 3,274명

5개 사설 불구 환자 시설(애양재활병원, 애락보건병원, 성심인애병원, 성라자로원, 성좌원) 입원 환자수 ; 1,665명

103개 정착촌 나음성자수 ; 10,108명

재가 환자수 ; 13,248명

2. 한국 천주교 구라기관의 활동

1] 천주교구라회와 서 요셉 신부

메리놀회 소속 미국인 서요셉 신부 (Rev. Joseph A. Sweeney, M.M.) 는 1920년 2월 8일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25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 본토 남쪽의 광둥성에 파견되었으며, 3년간 (1921~1924년)의 전교활동 후 다시 한국 신의주 근방의 비현성당에 부임하여 3년간 (1924~1927년)

전교활동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일체의 탄압과 박해가 극심하여 부득이 전교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중국에는 인구도 많지만 나환자도 많았으며, 특히 광동성은 나환자의 밀집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곳에서 5년간(1927~1932년)의 전교활동을 통해 나환자의 참상을 보았던 그는 이때 비로소 구라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년간(1932~1933년) 하와이에서 나병 공부를 마치고 광동성으로 되돌아와서 광동 근처에 병상 300개의 나요양소(Gate of Heaven Leprosarium)를 설립하였고, 그 후 중공군의 침입으로 추방될 때까지 19년간(1934~1953년)을 그곳 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중국인 나환자들의 진료와 구호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2차 대전 중에는 중군신부로 1년간(1944~1945년) 복무하기도 하였다. 중공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추방당해 미국으로 되돌아간 그는 2년간(1953~1955년)의 미국 체류기간에도 구라사업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해 세계 여러 곳의 나기관을 찾아다니며 나병연구와 구라사업에 열중하였다. 그는 35년간의 전교활동을 통해 구라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1954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Damien Dutton 상을 두 번째로 받음으로써 유명한 나사업가 신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던 1955년 다시 한국을 찾게된 것은 우리 나라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가톨릭구제회(N.C.W.C.) 안 캐롤주교(Rev. Msgr. George Carroll, M.M.)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까지 우리 나라의 나사업은 환자의 수용격리 정책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수용된 환자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보다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았던 재가 환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으며, 공동묘지와 교량 밑이 그들의 주거지가 되는 등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 요셉 신부는 이들의 진료와 구호를 목적으로 1956년 1월 1일에 천주교구라회(Catholic Leprosy Service)를 창설하여 거국적인 구라사업을 전개하였다. 즉, 필리핀 의사 1명과 한국인 의사 4명이 서울과 충남 강경, 충북 옥천, 경남 고성 등지에 상주하여 나환자와 일반

영세민 환자들을 진료하였으며, 이동진료를 할 때는 6개팀을 구성하여 매월 2회 거제도과 울릉도까지 진료에 나섰다. 진료반의 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 서울팀 ; 경기도 내 시흥, 화성, 평택, 안성 등 각 군
- 충남도 내 천원, 아산, 당진, 서산, 예산, 청양, 공주, 부여 등 각 군
- 강경팀 ; 충남도 내 논산, 대덕, 연기 등 각 군
- 전북도 내 익산군
- 옥천팀 ; 충북도 내 옥천, 증원, 영동 등 각 군
- 경북도 내 금릉, 상주, 문경, 예천, 봉화, 영주 등 각 군
- 밀양팀 ; 경남도 내 밀양군과 창녕군
- 포항팀 ; 경북도 내 영일, 영덕, 월성, 울릉 등 각 군
- 고성팀 ; 경남도 내 고성, 통영, 거제, 진양, 산청, 김해, 창원 등 각 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순회진료는 환자의 진료만이 아니라 구호도 겸하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많은 환자가 모여들어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성탄절 때는 구호물자 운반을 위해 트럭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진료장소는 성당 마당과 공소가 이용되고 때로는 공동묘지, 교량 밑, 도로변에서 진료를 하였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의 순회진료는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나병의 치료제로는 dapsone (DDS) 뿐이었으나, 서 요셉 신부는 마리 스잔 수녀(Sr. Marie Suzanne)에 의해 새로 개발된 항나제 Marianum antigen 과 나병예방에 사용되는 Marianum vaccine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이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환자가 Marianum antigen의 치료를, 또 환자들의 자녀와 접촉자들은 Marianum vaccine의 접종을 받았으며, 여러 외래진료소와 이동진료팀에 등록된 환자수는 12,000~13,000명에 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자녀와 접촉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환자들에게도 의료의 혜택을 베풀었다.

한편 천주교구라회는 우리 나라 천주교 사제들과 수녀들이 나병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큰 몫을 하였으며, 이동진료팀이 찾아가는 성당의 사제들에게는 그들의 구미에 맞는 양주, 커피, 치이즈 등을 보내어 나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

하기도 하였다. 포항의 예수 성심시녀회는 구라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수녀들을 외래진료소와 이동진료팀에 파견시켜 간호 수녀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총원장 수녀를 지냈던 김 벨라멧다 수녀는 지금도 부산 용호농장에서 나환자들의 진료를 돕고 있다. 그의 봉사활동이 높이 평가되어 1983년 제1회 다미안 신부상(봉사부문)을 받았다. 그 후 옥천, 포항, 고성 등지에는 종합병원인 성모병원의 발족을 보게 되었으니, 아마도 천주교구라회의 활동이 자극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서 요셉 신부는 성 라자로원 내 환자집에 거주하면서 이동진료팀을 따라 여러 곳을 순회하며 환자들의 실상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곳 사제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신농장(성심의원), 문경군에 있는 상신농장, 경남 김해군에 있는 낙동생생원, 산청군에 있는 성심원(현 성심인애병원) 등 그 터전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동진료사업이 한창이었던 1965년의 매일 환자 진료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울진료소(경북지역 실적 포함); 1,150명
- 2) 강경진료소; 450명
- 3) 포항진료소; 850명
- 4) 밀양진료소; 270명
- 5) 고성진료소; 1,820명
- 계 4,540명

또한 그 당시 직원은 의사 4명, 간호원 4명, 간호보조원 3명, 임상병리기사 2명, 운전 기사 3명, 나병관리 요원 13명, 비서 1명 등 총 30명이었으며, 연간 소요경비는 봉급 6,516,000원(U.S.\$23,272), 여비 907,000원(U.S.\$3,240) 차량유지비 342,000원(U.S.\$1,222), 차량수리비 203,000원(U.S.\$725), 사무비 135,000원(U.S.\$482), 의약품비 855,000원(U.S.\$3,054) 기타 90,000원(U.S.\$321) 등 총 9,048,000원(U.S.\$32,316)으로 매년 많은 돈이 투입되었다.

천주교구라회가 창설된 지 10년(1956~1965년)이 되었을 때, 서 요셉 신부의 나이도 70세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으며 또 재경난도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북의 일부 지역

은 대구 파티마병원으로 이관되고, 진료구역도 대폭 축소하여 경남도와 충남도로 제한하였다.

1966년 11월 27일 서 요셉 신부의 선종으로 천주교구라회는 그의 유언에 따라 부영발 신부(Rev. Edward J. Moffett, M.M.)와 현 야고보 신부(Rev. Alfred Fleming, M.M.)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1967년부터는 정부 시책에 따라 충남과 경남의 5개 군에서 조기 나환자의 발견과 치료, 그리고 나병의 역학적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남도와 충남도에서의 역학적 조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후 1972년 4월부터는 부영발 신부의 관장하에 천주교구라회 본부를 한강성심병원 내에 두고 충남 6개 군(천원, 아산, 예산, 당진, 홍성, 서산)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해 오다가, 대한나환리협회 충남 지부로 이관하고, 1978년부터는 강원도 영서 일부와 영동지방 4개 시(강릉, 속초, 동해, 태백)와 7개 군(명주, 양양, 고성, 삼척, 정선, 평창, 영월)에 거주하는 재가 나환자 160여 명에 대해 매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은 축소되었으나, 그의 유업이 계승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서 요셉 신부는 생전에 우리 나라 나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1961년에 보사부 장관 표창, 1962년에는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상하였으며, 또 1966년에는 대한의학협회로부터 명예회원에 추대되었다. 그는 명실공히 나환자들의 사도요, 가톨릭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구라사업계의 은인이다.

2] 가톨릭중앙의료원 만성병연구소

천주교구라회 설립자인 미국 메리놀회 서 요셉 신부의 도움과 가톨릭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 피부과학 교실의 협조를 얻어 1961년 4월 1일에 설립된 만성병연구소는 우리 나라 유일의 의과대학 부속 나병연구기관으로서,

- 가. 나환자의 발견과 치료 및 예방
- 나. 나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 재활
- 다. 나병의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에 관한 연구
- 라. 의학과 학생과 간호학과 학생에게 나병

지역구별 환자분포와 유병율

경남지구	환자수	유병율	충남지구	환자수	유병율
창녕	121	0.80	대덕	29	0.16
밀양	395	1.95	논산	75	0.30
김해	248	1.26	부여	41	0.21
창원	319	1.82	청양	12	0.12
통영	72	0.84	예산	77	0.45
거제	92	0.77	당진	40	0.22
고성	183	1.40	아산	48	0.28
근처시,군	136	—	천원	41	0.31
			근처시,군	48	—
계	1,566		계	411	

에 관한 교육과 실습

마. 국제 교류를 통한 나병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을 수행하며 외래진료와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소의 사명인 나환자의 진료와 나병 연구 및 학생들에 대한 나병 교육은 1965년 10월 나병 전문의사인 최시룡 교수가 책임자로 부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서울교구 산하 성 라자로 마을의 운영과 천주교구라회의 외래진료와 이동진료를 관장하여 왔으며, 그 후 1967년에 성 라자로 마을이 수원교구로, 또 1972년에는 천주교구라회 이

동진료업무가 한강성심병원 부속 한국의과학연구소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그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다시 1971년부터 성 라자로 마을의 진료를, 또한 1982년부터는 천주교구라회의 이동진료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1967년 고서 요셉 신부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한국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 창립에 이 연구소가 주동적 역할을 하였고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 지부 진료반 창설에도 기여하였다. 이 연구소 창설 이래 등록 외래 나환자 총수는 1,200여 명에 달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 외래나환자 성별, 연령별 및 병형별 현황

연령별 성별	병형		L		T		I		B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 ~ 9				1	2						3
10 ~ 19	11	8	21	18	11	11	10	1			91
20 ~ 29	89	29	113	56	32	8	26	17			370
30 ~ 39	111	37	130	38	17	7	39	12			391
40 ~ 49	82	17	63	25	8	4	19	13			231
50 ~ 59	29	11	14	21	5	4	6	8			98
60 이상	16	19	16	12	1	2	6	6			78
계	338	121	357	171	76	36	106	57			1,262

2. 외래나환자 진료와 검사실적

연도	성별		계	각종검사실적
	남자	여자		
1974 ~ 1978	315,900	172,570	488,470	15,108
1979 ~ 1983	305,040	171,750	476,790	8,154
계	620,940	344,320	965,260	23,262

3. 기타 합병 치료 인원

연도	성별		계
	남자	여자	
1974 ~ 1978	13,111	7,322	20,433
1979 ~ 1983	19,692	9,832	29,524
계	32,822	17,154	49,957

4. 나환자 이동진료와 검사실적

연도	진료내용		이동진료	계	세균검사		계
	남	여			남	여	
1979 (9월~12월)	3,479	2,765	6,244	404	304	708	
1980 ~ 1981	13,235	10,805	24,040	1,404	1,120	2,524	
1982 ~ 1983	12,108	11,196	23,304	1,640	1,338	2,978	
계	28,882	24,766	53,588	3,448	2,762	6,210	

3) 성 라자로 마을과 이경재 신부

민족적 시련기였던 1950 년대에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나환자들의 초라한 움막 생활로 시작된 이곳 몰암산 기슭의 성 라자로 마을은 독지가의 사랑의 손길이 퍼짐에 따라 나환자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1950 년 6월 2일 미국 메리놀회 안 캐롤 주교가 가톨릭구제회(NCWC) 한국 총책임자로 있을 때 오갈 데 없는 나환자들을 모아 오류동에 모여 살도록 하였고, 6·25 남침으로 흩어진 그들을 1951 년 7월 5일 현재의 몰암산 기슭 성 라자로 마을로

옮겨 살게 하였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빈곤과 혼란 속에서 남들을 도울 만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우한 나환자들을 꺼리고 돌보려 하지 않았으며 교회의 입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때에 당시 수원 복수동천주교회 보좌신부로 있던 이경재 신부가 1952 년 3월 9일 성 라자로 마을 초대 원장 신부로 자원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노력만으로는 폐허의 땅을 나환자들의 보금자리로 가꾸기에는 너무도 어려움이 많아 부임한 지 2년만에 건강의 악화로 성 라자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54년부터는 하한주 신부가 2대 원장신부로 있었고, 1957년에는 윤율수 신부가 3대 원장신부로 부임하면서 성 라자로 마을에서 퇴원하는 음성 환자들을 위해 정착마을 의왕정착촌을 설립하였다.

1967년 7월 서울대학교 교수 소속이었던 성 라자로 마을이 수원교구로 이관됨에 따라 6대 원장신부가 된 류봉구 신부는 수원 북수동 본당 주임신부를 겸임하였다.

1970년에 건강을 회복한 이경재 신부는 미국 생활 10년을 정리하고 성 라자로 마을의 7대 원장신부로 자원하였다.

원장신부로 부임한 그 해 12월 19일 라자로 돕기회(후원회)가 발족하여 성 라자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1979년 7월부터는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의 2개 시(의정부, 동두천)와 8개 군(가평, 고양, 남양주, 양주, 양평, 파주, 포천)의 정착마을 나음성자들과 재가 나환자들을 위하여 이동진료를 시작하였다.

이경재 신부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 하나 둘 이루어져 불구 나환자 110명이 기거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동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여 반석의 집, 셋별의 집, 모듬의 집, 토마스 신부의 집, 다미안 신부의 집, 정결의 집, 라자로의 집, 치유의 집 등이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집들이 모두 우리 국민들의 성금에 의해 지어지지 못하고 이경재 신부가 외국으로 다니며 받아온 외국인들의 성금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아쉬움을 갖게 한다.

나환자들의 아버지인 다미안 신부를 무척이나 흠모하는 성 라자로 마을의 이경재 신부는 나환자라는 이름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서러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사회인과 똑같은 형제이며 자매라고 강조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며, 특히 구령을 위한 구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성 라자로 마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이경재 원장신부의 사제로서의 사명감과 남다른 노력이 있었으며 가톨릭 나사업계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다가 선종한 노기남 대주교,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 성 라자로 마을 수녀들과 봉사자들, 국내외

1. 입원환자 불구도 분류

분류 성별	2도	3도	4도	5도	6도
	남 자	2	8	16	30
여 자	6	9	10	26	51
계	8	17	26	56	107

2. 입원환자 병형 분류

성별	병형	나종양형	결핵형	중간군	계
		남 자	49	7	-
여 자	47	3	1	51	
계		96	10	1	107

3. 입원환자 나균 등태

성별	분류	양성	음성	계
		남 자	8	48
여 자	16	35	51	
계		24	83	107

(1982. 6. 30 현재)

의 라자로돕기회 회원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든 이들의 숭고하고 따뜻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겠다.

성 라자로 마을 입원환자의 현황과 이동진료 실적은 앞의 표와 같다.

4) 성 프란치스코회와 성심인애병원

천주교구교회의 이동진료에 힘입어 경남 진주 천주교회의 성 프란치스코회 소속 이태리인 주 폰스판시오 신부(Rev. Constantius Giupponi, O. F. M)는 진주시 현남동 소재 구생원을 근거지로 부랑걸식하고 있던 나환자 60여 명을 인수하여 현 위치인 경남 산청군 산청면 내리로 이주

시켜 1959년 성심원을 설립하였다. 진주에서 북서쪽 남강 상류변에 위치한 이곳은 인근에 민가가 없는 고립된 밤나무 단지로 지방민의 큰 반대 없이 환자들을 정착시킬 수 있었으나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야 했으므로 교통상 매우 불편한 곳이었다.

이러한 곳에 처음에는 천막을 이용하여 환자들을 수용해 왔으나 현재 400여 명을 수용 보호할 수 있는 성당(147평), 병원(179평), 수도원(192평), 수녀원(70평), 직원실(76평), 목욕탕(16평), 사무실(50평), 기타 70여 동의 크고 작은 병동 등 많은 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이태리인 성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이 건설 사업은 중국 본토에서 전교 활동을 해온 이태리인 정 시몬 신부(1961년 8월~1970년 6월)가 담당하였으며, 견고한 중국식 건축양식은 우리 나라에서는 보기드문 건축예술품의 하나라 하겠다.

또한 1965년부터 외과, 내과, 피부과, 안과, 치과, 물리치료실, X선실, 검사실을 설치 운영 하는 한편 서부 경남 8개 구역의 순회 진료와 함께 본관 정문 앞에는 다미안 시약소를 설치하여 산청 군민과 인근 주민에게까지 무상으로 치료해 주고 있다.

1967년에는 환자들의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남 대전시 갈마동에 건평 1,500여 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들의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1972년에는 보건사회부로 부터 불구 나환자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원명을 성심인애병원으로 개칭하였다.

현재 세균학적으로 나균 양성 환자와 재활능력이 없는 노약자, 그리고 불구도 3도 이상자만을 입원시키며 그 중에는 실명자가 22명, 의족착용

자가 63명이나 된다. 25년 동안이나 불구도가 심한 환자와 60세 이상의 무의무탁한 나환자들을 돌보아 온 성심인애병원이 우리나라 나환리사업에 끼친 공로는 실로 크다 하겠다.

입원 환자들의 연령과 병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입원 나환자 병형별 현황

병 형	남	여	계
나 종 양 형	169	98	267
결 핵 양 형	60	44	104
중 간 군	7	2	9
부 정 군	4	3	7
계	240	147	387

3. 입원 나환자 세균학적 나균 검사 현황

병 형	양 성	음 성	계
나 종 양 형	32	235	267
결 핵 양 형	0	104	104
중 간 군	4	5	9
부 정 군	0	7	7
계	36	351	387

(1982년 말 현재)

5) 가톨릭피부과의원과 엠마 프라이징거 여사

1950년대 후반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나환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인가가 드문 곳에 움막을 치고 유랑생활을 하던 시절과 선교사의 자

1. 입원 나환자 성별과 연령별

연령별 성별	20~29	30~39	40~49	50~59	60~69	70 이상	계
남	14	24	46	79	59	18	240
여	15	15	26	48	33	10	147
계	29	39	72	127	92	28	387

격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를 지켜 본 오스트리아인 신부의 제창으로 설립된 이 기관은 1960년 대 초반에 내한한 오스트리아인 간호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경북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협조와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 국내 굴지의 구라사업단체로 성장하였다.

1960년 1월에 대구대교구 산하에 구라사업부가 신설되고 초대 대표에 루디 신부(Rev. Rudolf Kranewietter)가 임명 되었으며 의성 신락원, 고령 은양원을 설립, 농지 매입과 주택 건립을 통해 유랑걸식 환자를 정착시키고 생계 보조와 의료 지원을 하였다.

1961년 4월에는 엠마 프라이징거(Emma Freisinger) 여사가 내한,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의 지원으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임야 15,000여 평을 매입, 아동기숙사를 신설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양성 환자의 자녀를 격리 보호하였다.

1963년 2월에는 현 소재지인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대지 2,000평을 매입, 병실 3동과 간호원

기숙사 등 부속건물을 신축 개원하여 유랑걸식하는 나환자들에게 본격적인 입원 치료를 실시하였다.

1966년 5월에는 역시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의 재정 지원으로 현대식 병원을 준공, 경북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후원으로 나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일반 피부질환자의 진료와 학교 및 주민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초대 원장에 엠마 프라이징거 여사가 취임하였다.

1970년 1월에는 나환자들의 후원회인 릴리회가 창설되어 독지가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전국 나환자들에게 의수족과 미모이식수술 등 재활수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 재가 환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직업 보도, 그리고 교육비도 보조하게 되었다.

또 여사는 1971년에 한국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장, 1977년에 릴리회 전국회장에 피선되었고, 1973년부터는 서독구라회 주한대표도 겸임하는 등 여사의 구라활동이 국내 전반에 미치게 되었다.

1981년 7월에는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 부

등록 나환자 성별, 연령별 및 병형별 현황

1980년말 등록 환자수	연간증가된 환자수			연간 감소된 환자수					1981년 현재 등록총 환자수	치료참석율				
	신환	전입	소개	완퇴	사망	입원	전출	행불		소개	0%	25%	50%	75%
1,946	58	114	172		44	3	129	11	187	1,931	55	61	91	1,724

연령	1981년말 현재 등록 총 환자수	남자 1,188		여자 743		계 1,931	
		L	NON-L	L	NON-L	L	NON-L
계	1,931	604	584	392	351	996	935
0~4							
5~9	1		1				1
10~14	4		3	1		1	3
15~19	15	4	8	1	2	5	10
20~24	56	12	29	5	10	17	39
25~34	273	67	94	47	65	114	159
35~44	570	189	148	134	99	323	247
45~80	1,012	332	301	204	175	536	476

속 가톨릭피부과의원으로 개칭, 외래진료와 이동진료, 단기 입원 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전국 나환자의 재활수술과 진료비 보조, 계몽사업, 그리고 교육비와 국민 재가 환자의 자립비를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구라기관 중 대표적 기관이 되었다.

여사의 그간의 활동은 나이팅게일이 참 모습을 보여준 것이며 나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여사가 회장으로 있는 구라사업 후원단체인 릴리회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같이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여사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국민훈장과 5·16민족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효성여자대학교로부터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등록 나환자 성별, 연령별 및 병형별 현황은 앞의 표와 같다.

6] 성 베네딕도회 성심의원과 디오메데스 메펠트 수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동에 있는 성신원(지금의 성신농장)은 원래 천주교구라회 이동진료반의 전진기지로 나병전문 의사가 상주하였다. 1955년 10월 농장 부지 16정 8묘를 매입하여 성주군 일대에서 초막생활을 하던 유랑 나환자와 고령군 집단부락 온양원에서 이주한 환자들로 정착촌을 설립, 천주교 왜관 감독대리구 관할 성주본당의 독일인 정목덕 (Rev. Egbert Dorfner, O. S. B.) 신부가 관리를 맡아 보며 성당을 건립하였다.

그 후 1961년 성 베네딕도회 왜관 대수도원과 독일 미세레올 재단 및 서독구라협회의 자금 지원

으로 성신농장 내에 연건평 135평의 성심의원을 건립하여 내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1962년 3월에 개원한 이후 디오메데스 메펠트 원장수녀가 환자들의 진료 일체를 전담하고 있다.

디오메데스 메펠트 수녀 (Sr. Diomedes Meffert, M. D.)는 1933년 독일 뷔르즈부르크(Wurzburg) 의과대학을 졸업, 의학박사와 의사면허를 취득, 그 후 투쟁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 입회하였으며, 1937년 6월 한국에서의 전교와 의료봉사에 뜻을 품고 내한하였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근무도 하였고, 일본 동경제국대학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북한(함남, 함흥)에서 성심의원을 개설, 9년간(1941~1949) 지역 주민에게 의료 시혜를 주어 왔다. 그러나 1949년 5월 공산 치하의 학정으로 원산에서 강제노동과 3개월 간의 옥고를 치르고 본국(서독)으로 추방을 당하였다. 귀국 후에도 독일 투쟁 병원과 뮌헨 의과대학 병원 등에서 의학공부를 계속하였으며 1958년 5월 전교와 의료봉사를 위해 재차 내한하였다. 그는 한국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근무하며 왜관 감독대리구 관할 4개 정착촌(왜관 삼청농장, 성주 성신농장, 문경 상신농장)의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다.

1962년 3월 20일 성심의원을 개설,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가 나환자, 정착촌 환자, 양로원 환자, 결핵 환자, 일반 국민 환자 등의 진료와 자립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20여 년 간의 숨은 공로로 제 2회 다미안 신부상(공로부분)을 받았다.

그 중 삼청농장과 성신농장 정착촌 나환자의 연령, 병형별 현황, 입원환자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입원환자 실적

연도별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8월말)	계
입원환자수	69	87	88	81	77	65	54	50	36	607
입원환자수 연 인 원	2,677	3,682	4,732	2,990	2,675	2,749	2,263	2,042	945	24,755
계	2,746	3,769	4,820	3,071	2,752	2,814	2,317	2,092	981	25,362

7) 다미안피부과의원과 데레사 캄비에 여사

한국동란 때 간호장교로 종군했던 벨기에인 데레사 캄비에 (Therese Cambier) 여사는 종전 후에도 한국에 남아 천주교구라회의 서 요셉 신부를 수년간 보좌하였다. 그는 고국인 벨기에로 귀국한 후에도 동란 때 만나 본 나환자들의 참상을 잊지 않고 있던 중, 1971년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구라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두 번째 내한하였다.

그리하여 경북 영주시 상망동 일대 임야를 매입, 102평의 병동과 부속건물을 준공하여 1974년 6월부터 나환자의 입원과 외래진료를 시작하였다. 한편 데레사 캄비에 여사는 정착마을을 순회하며 환자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과 자활사업도 보조하였다.

그 후 1977년에는 캐나다 나환자돕기재단(Sours Aux Lepreux)의 후원으로 248평의 병동을 증축하게 되고 피부과 전문의사인 고경문 박사가 의료를 담당케 됨으로써 진료사업은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40여 명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외래 피부과 환자의 진료를 통해 신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75년 9월부터는 9개 정착장(봉화강화원, 연덕 신애농장, 안동 계영원, 문경 상산농장, 상주 성심농장, 의성 경애원, 천자원, 금성농장, 신태농장)과 1977년 1월부터는 2개 시(안동, 영주시)와 4개 군(안동군, 예천군, 봉화군, 영풍군)의 이동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1979년 6월 말에 초대 원장인 데레사 캄비에 여사가 신병으로 사임하게 되었고 모든 운영권이 안동교구로 이관하게 되자 2대 원장에 류강하 신부가 임명되었다. 그 후 1981년 3월부터는 마리스타 교육수사회가 이 의원의 운영과 관리를 주관하고 또 성모영보회수녀들이 협조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돕고 있다.

등록나환자 성별, 연령별 및 병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8) 대구 파티마병원

파티마병원은 재단법인 대구대교구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회 소속으로 1956년 7월 파티마의원으로 개원, 1962년 8월에는 종합병원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우수한 병원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다.

파티마병원이 이동진료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천주교구라회 서 요셉 신부의 영향 때문

등록 나환자 성별, 연령별 및 병형별현황

1. 성별과 연령별 구분

구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715		7	67	94	207	178	136
남	490		7	44	63	144	126	88	18
여	225			23	31	63	52	48	8

2. 병형별 구분

구분	계	병형별			
		L	T	B	I
계	715	314	337	42	22
남	490	224	228	25	13
여	225	90	109	17	9

(1982년 7월말 현재)

이었다고 생각된다. 경북 선산, 상주, 성주, 금릉군 일대의 환자 명단이 천주교구라회로부터 파티마병원으로 인계된 것을 계기로 1966년 6월 파티마 병원에 이동진료반이 편성되고 위 지역에 철곡, 군위군도 관할하게 되었다. 그 후 나병 전문의사인 하용마 박사가 이동 진료를 담당하게 되면서 병원시설을 크게 확장하여 1977년 3월에는 외래진료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2개 시(김천, 구미)와 5개 군(선산, 상주, 성주, 문경 및 금릉)에 있는 9개 진료소를 매월 1회 이동진료하며 또 5개 정착촌의 환자 진료를 통해 나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와 재발 억제, 나병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등록 나환자 성별, 연령별 및 병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9) 이리 성모의원과 송윤희 수녀

1972년 6월 동정성모회에서는 이리시 창인동에 성모의원을 개설하여 영세민과 나환자 진료를

하여 왔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980년 10월에는 이리시 영등동(현 위치)의 대지 1,600평, 연건평 676평에 40개 병상의 훌륭한 병원 준공을 보게 된 것은 성모의원장 송윤희(크리스티나) 수녀와 동정성모회 수녀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별 기반이 없던 그곳에서 병원을 신축하고 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불우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시혜로써 새로운 삶과 기쁨, 희망을 심어 주는데 노력해 온 동정성모회 수녀들의 개척정신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나환자의 외래 진료실과 입원치료 시설까지 갖추고 이동진료도 실시하고 있으니 지역의 나병 관리 체제면에서 모범적인 기관의 하나라 하겠다.

현재 20개 병상은 나반응, 나성 케양 재발 환자의 무료 입원이 실시되고, 이동 진료반은 2개 시(이리, 군산)와 6개 군(정읍, 고창, 부안, 김제, 옥구, 익산) 또 9개 정착촌(익산군: 익산농장, 신촌농장, 금호농장, 상지원, 김제군: 비룡농원, 신암농원, 신흥농원, 정읍군: 정애원, 고

등록 나환자, 성별, 연령별 및 병형별 현황

1. 등록 나환자의 기관별 등록 현황

등록 총환자수	외래진료	시, 군보건소	정착촌
1,711	338	989	384

3. 성별과 병형별 등록 현황

성 별			병 형 별				계
남	여	계	L	T	B	I	
1,110	601	1,711	817	683	91	120	1,711

(1982년 말 현재)

1. 재가 나환자 등록 현황

내역 지역	총수	남	여	양성	음성
이리시	31	25	6	13	18
군산시	15	8	7	8	7
익산군	77	52	25	24	53
옥구군	32	18	14	3	29
김제군	99	78	21	12	87
부안군	45	33	12	4	41
고창군	69	42	27	16	53
정읍군	87	61	26	10	77
기타지역	159	112	47	51	108
소 계	614	429	185	141	473

2. 연령별 등록 현황

9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1	22	200	385	499	341	185	78	1,711

창군 : 동혜원)에 대하여 월 1 회씩 정기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82년 10월부터 익산농장 내에 수녀원 숙사를 마련하여 유아 교육, 보건 교육, 생활지도 교육을 통해 그들의 환경 속에 파고들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 동화하여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가 나환자와 정착촌 나환자의 등록현황은 앞의 표와 같다.

3. 가톨릭 구라사업에 이바지한 사람들

천주교회가 나환자와 불구나환자를 위해 나병원과 의원을 설치 입원가료를 해주며, 또 이동진료사업을 통해 지역의 재가 환자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의료 혜택을 주어 왔음은 전기한 바이거나, “오른 손이 한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성직자들의 지난 업적을 기술하기에는 너무나 그 자료가 부족하여 두려움마저도 없지 않다.

성 라자로 마을에서 나환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여생을 보내다 선종한 노기남 대주교는 이 나라 구라사업에 지주적 역할을 하였고, 그 외 많은 성직자와 가톨릭계 인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기에 교구별로 그들의 업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대교구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에 있는 정착마을 천성농장은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의정부 천주교회 김창석 신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현재 환자 91명, 건강인 209명 등 300명이 자활의 길을 걷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정착마을 상록촌은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1975년부터 김몽은 신부, 김창석 신부, 김정원 신부, 이경재 신부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현재 26세대 93명(환자 30명, 건강인 63명)이 자활의 길을 걷고 있다.

춘천교구 :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에 있는 정착마을 포천농축단지 1974년 정착 후 포천 천주교회 골롬반노회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 왔으며, 현재 55세대 225명(환자 69명, 건강인 156명)이 자활의 길을 걷고 있다.

대전교구 : 충남 논산군 광서면 정착마을 성광원은 1957년 정착 당시부터 천주교구라회의 도움

을 받았으며, 1963년에 논산 천주교회 불란서인 노신부가 임야 8,520평, 논 1,189평, 밭 355평을 매입 회사하였고, 현재 43세대 136명이 자활하고 있다.

수원교구 :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에 있는 의왕정착사업장은 1962년 윤을수 신부의 도움으로 성라자로원에서 음성 퇴원하는 환자들이 정착하였으며, 현재 89세대 280명이 자활하는 큰 마을로 성장하였다.

안양시 안양 6동에 있는 다미안사회복지회는 살레시오회 벨기에인 파레몬드 신부(Rev. Raymond Spies, S. D. B.)가 설립하였는데, 서울 응암동에 데레사의 집, 신림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 시흥에 마리아의 집 등을 마련하여 나환자의 자녀들에게 숙소와 직업 알선을 하여 주고 있다.

대구대교구 :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 있는 은양원은 1966년 천주교 대구교구청의 지원으로 대지 3,000여 평에 주택을 조성하여 정착하였으며, 현재 26세대 103명(환자 45명, 건강인 58명)이 자활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정착마을 성신농장은 1955년 정착 당시 천주교구라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후 천주교 성주본당 서독인 정목적 신부(Rev. Egbert Dorfler, O. S. B.)의 성당 건립,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의 자립자금 지원으로 정착하였으며, 현재 50세대 207명(환자 75명, 건강인 132명)이 자활하고 있다. 이곳 원장은 왜관대리구 대주교 대리인 이동호, 아빠스이며 환자 진료는 성심의원 디오메데스 메펠드 원장수녀가 담당하고 있다.

경북 왜관읍에 있는 정착마을 베타니아원은 1956년 정착 당시부터 왜관대리구 소속 서독인 남 호노라또 신부(Rev. Honorat Millemann, O.S.B.)의 도움을 받았으며 지금도 남 신부는 그곳 원장직을 맡고 있다.

부산교구 : 부산시 남구 성 프란치스코의 집과 경남 양산군 일광면 성가원 탁아소는 나환자 자녀들의 보육시설이며 프란치스코회 이태리인 황 마리오 신부(Rev. Mario Fabrizi, O.F.M.)와 범덕에 신부(Rev. Francis Faldani, O.F.M.)가 각각 원장직을 맡아보고 있다.

경남 양산군 일광면 삼덕농원은 1962년 천주

교구라회 서 요셉 신부가 마련해 준 대지 4,200평에 35동의 주택을 건립하여 정착하였으며, 그 후 N.C.W.C.와 범덕에 신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68세대 258명(환자 101명, 건강인 157명)이 자활하고 있다.

마산교구: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정착마을 협성농원은 1965년 N.C.W.C. 지원으로 주택 5동을 건립한 후 서독구라협회, 본당 인성회의 도움으로 대지 등을 마련하여 정착하였으며, 현재 38세대 127명(환자 68명, 건강인 59명)이 자활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 적량면에 있는 정착마을 영신원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1960년 3월부터 서독구라협회의 원조를 받아 임야 70정보, 논 24,000평, 밭 1,600평을 마련하여 정착하였으며, 또 한독의원을 설립, 엠마 프라이싱거 여사가 관리하고 있다. 현재 56세대 245명(환자 89명, 건강인 156명)이 자활하고 있다.

안동교구: 경북 상주군 공검면에 있는 정착마을 성심농장(성모성심원)은 1959년 천주교 상주본당 서독인 경 엘리기우스 신부(Rev. Eligius Kohler, O.S.B.)가 대지 400평을 구입하여 건물을 짓고 정착하였으며, 현재 28세대 131명(아동 74명 포함)이 자활하고 있다.

경북 문경군 농암면에 있는 정착마을 문경 상신농장은 1957년 정착 당시부터 10여년간 천주교구라회의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 117명(환자 46명, 건강인 71명)이 자활하고 있다.

경북 안동군 풍산읍에 있는 정착마을 계명원은 1958년 프랑스인 여동찬 신부(Rev. Roger Ke-verrier, M.E.P.)의 도움으로 정착하였으며 85명(환자 32명, 건강인 53명)이 자활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 봉성면에 있는 정착마을 갯화원은 1963년경 윤을수 신부에 의해 설립된 후 천주교구라회와 천주교 안동교구청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 외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정착마을 신탁원,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있는 정착마을 신애원 등이 안동교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광주대교구: 전남 나주군 노안면에 있는 정착마을 현애농원은 6·25 직후 1953년 3월 전남도내 부랑 나환자를 불쌍히 생각하여 당시 광주교구

장이던 하롤드 헨리 대주교(Most Rev. Harold Henry, S.S.C., D.D., L.L.D.)에 의해 설립된 후 현재 102세대 457명(환자 184명, 건강인 273명)이 자활하는 마을로 발전하였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있는 정착마을 영민농원은 1977년 6월은 다니엘 신부(Rev. Daniel O'Gorman, S.S.C.)가 주택 6동을 건립하여 회사하였으며, 현재 28세대 78명(환자 36명, 건강인 42명)이 정착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 도포면에 있는 정착마을 영호농장은 1968년 5월 천주교 광주교구에서 임야 10정보를 매입하여 주택 10동을 건립, 국립나병원에서 퇴원한 천주교 신자 10세대를 입주케 하였다.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정착마을 폐목농원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근무하는 오스트리아인 스티게르 마리안네(Marianna Stoger) 간호원이 농지와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입주시켰으며, 현재 7세대에 29명(환자 14명, 건강인 15명)이 정착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 도양면 소록리에 있는 국립나병원에는 그리스도왕회의 성직자와 메리놀회 수녀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스티게르 마리안네와 피싸렉 말가렛(Margreth Pissarek) 두 간호원이 환자들의 투약과 간호업무에 봉사하고 있다.

전주교구: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정착마을 동혜원은 1963년 4월에 정착하였으며, 현재 51세대 198명(환자 56명, 건강인 142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태리인 수녀와 한국인 수녀 각 1명이 환자들의 투약과 진료 업무를 맡아 보고 있다.

전북 익산군 함열읍에 있는 정착마을 상지원은 1963년 정착 당시에는 천주교구라회의 도움을 받았고 1973년부터는 함열천주교회 김영규 신부의 도움과 정부의 협조로 현재 204명이 정착하고 있으며, 성모영보수도원 수녀들이 환자들의 투약과 진료를 맡아보고 있다.

4. 한국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

고서 요셉 신부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하여 범가톨릭계 나사업의 정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독구라협회 주한대표였던 헤르만 브뢰스캠프(Hermann Broscamp)와 가톨릭중앙의료원 만

성병연구소장 최시룡 교수가 주동이 되어 몇몇 가톨릭계 구라사업가들 모임을 주선하게 되었다. 즉 가톨릭구제회장 안 캐롤 주교, 프란치스코 카린(Francis Carlin), 천주교 구라회장 부영발 신부, 현 야고보 신부, 로즈마리 후버(Rosemary Huber) 수녀(메리놀회), 산청 성심원장 정시몬 신부(프란치스코회), 성주 성심의원장 디오메스 메펠트 수녀(성 베네딕도회), 칠곡 가톨릭피부과 의원장 엠마 프라이징거 여사, 수원 지동천주교회 공 콘라도 신부(Rev. Konrad Fischer) 등이 모여 논의 끝에 1967년 10월 10일 한국 가톨릭나사업가 연합회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 캐롤 주교를 연합회 고문에 추대하고 초대 회장에는 브외스캄프가 취임하였다.

1968년 1월에는 세계 나병의 날을 구라주일로 결정하여 제 1회 구라주일 헌금을 모금하게 되었고, 5월에는 정식으로 한국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담당지도에 안 캐롤 주교가 취임하였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브외스캄프가 귀국함에 따라 2대 회장에는 현 야고보 신부가 선출되었으며, 1969년 3월에는 나병에 관한 대중연극을 제작, 전국 순회공연에 나섰다. 이 연극은 서강대학의 이근삼 교수가 각본을 쓰고 극단「가교」가 공연한 것으로 대중의 반응도 대단히 좋았다.

1970년 4월에는 현 야고보 신부가 신병으로 사임하게 되자 3대 회장에 천주교구라회 사무담당 김태석을 선출하여 전국 가톨릭 구리기관의 실태 조사와 불구 나환자의 입원 알선, 의수족 제작 지원 등을 도와 주었다.

1971년 7월에는 4대 회장으로 엠마 프라이징거 여사가 선출되고 연합회 사업은 확장되어 정착촌의 신용조합 육성지원과 자조회 조직이 시작되고, 신앙교육, 자립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부랑 나환자의 격리수용과 미모 이식 등 성형 수술이 시작되고 전국 정착마을 부녀회를 설립, 환자 자녀의 장학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재가 환자에게는 정착금 지원도 하였다.

1981년 11월에는 5대 회장에 이경재 신부가 선출되어 전국 정착마을 성령 세미나를 도입, 신앙쇄신 교육에 힘쓰게 되었다.

1982년의 구라주일 헌금은 1억 5천여만 원으로 4월에는 회원기관에 대한 구라헌금 기금 전

달식을 가졌고, 6월에는 전국 40개 정착마을 성모회가 조직되어 9월에 전국 성모회 제 1차 총회를 열고 회장단 선출과 우수 마을 시상이 있었고, 10월에는 40개 정착마을 공소회장들의 제 1차 총회에서 회장단 선출이 있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다미안 신부상 시상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 나라 구라사업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에게 공로상과 봉사상을 수여키로 하고 1983년 4월 15일 제 1회 다미안상 수상식을 가졌다.

5. 한국과 서독구라협회

서독구라협회(German Leprosy Relief Association, DAHW)는 민간 원조단체로, 본부는 서독 뷔쯔부르크에 두고 있으며, 이디오피아에서 처음으로 구라사업을 시작한 페론(Feron)박사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8년 창설되었다.

나병이 만연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나병관리사업이 일반 보건사업과 통합, 운영되어 그 나라의 나병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비 중 일부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국내의 많은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범 세계적인 구라회원 단체로 성장하였다. 현재 68개국의 619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창립 이듬해인 1959년부터 도움을 받아 왔다.

한국이 서독구라협회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그곳 한국인 유학생의 도움이 컸다. 즉 수혜국을 물색하고 있던 서독구라협회를 찾아간 한국인 유학생은 경남지역 나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근거로 개별 서신을 통해 하동 영신원을 비롯하여 함양 중생원, 신양 신광원, 통영 애조원 등 여러 개의 정착촌이 자립비 지원을 받았다.

그 후 지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서독구라협회에서는 1964년 처음으로 당회 창설자의 일원이 되고 재정 담당자이며 또 한국을 포함, 아시아 지역 수혜국들의 책임자이기도 한 스티들(Erwin Stindl) 씨를 한국에 파견하여 실정을 살피게 하였다. 그는 성 라자로 마을의 서 요셉 신부를 만나고 천주교 왜관 대리구 베네딕도 수도원도 방문하였으며, 또 경남지역의 여러 정착촌을 두루 시

찰하였다. 정착촌 순회시찰 결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은 못 되었지만 한국 나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6년에는 전주에서 나사업에 종사한 바 있는 프릭스캄프 씨를 주한대표로 임명, 주로 정착촌 환자의 자녀와 이동진료반 등 의료사업비를 지원하였는데, 한편 그는 한국 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 창설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스티븐 씨는 1968년 재차 내한, 김수환 추기경, 안 캐롤 주교, 국무총리실, 보건사회부, 대한나협회 등을 방문, 한국의 나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같은 해 2대 주한대표로 수원 지동천주교회 공콘라드 신부가 임명되어 나병 후유증으로 생긴 각종 기형의 교정수술을 위한 재활수술비를 지원하였다.

그 후 1973년에 가톨릭피부과의원 엠마 프라이징거 원장이 3대 대표로 임명됨으로써 지원사업은 크게 확장되었으니, 그녀가 한국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나병실적에 밝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착촌사업, 의료사업, 이동진료반, 나병 계몽지《복지》발간, 불구환자, 의료보호기간 등 여러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재가 환자의 자립, 계몽사업에도 지원하는 등 1980년 그 지원금은 6억 1천 5백여 만원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서독구라협회가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3년간 우리나라의 구라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32억 5천 4백여 만원이 된다.

앞에서 소개한 스티븐씨는 대학에서 정치·경제법학을 전공한 후 언론계에 투신, 1956~1966년까지 독일신문(German Daily News Paper)의 기자, 편집장을 거쳐 그 후 발행인의 자리에 올랐으며, 독일의 중요 일요신문과 주관지의 공동 편집장직 등과 함께 많은 신문사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 부상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으나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인 못지않게 항상 정력적으로 일하였으며, 나환자를 돕는 일이라면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인품의 소유자였다. 또 그는 언론인으로서 인간성의 회복을, 또한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을 더욱 중요시하였으며, “나병은 모든 질병과 똑같이 간주되어야 하며 나병이 치유된

사람은 다시 사회에 복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은 나병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나협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가 별세 후에 우리 나라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이 추서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서독구라협회가 한국의 구라사업에 이바지한 지 25주년(1959~1984)을 맞이하여 성대한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맺 음 말

천주교의 구라사업은 ‘구명을 위한 구라’라는 대명제 아래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의 계승과 증진에 있다.

그 구체적인 예시로서는 8·15 해방 후 가톨릭구제회의 안 캐롤 주교(Rev. Msgr. George Carroll, M. M.)에 의한 1950년 6월 2일 성라자로 마을 설립을 들 수 있다. 그 후 6·25남침의 발발로 다른 구호사업에 밀린 감이 없지 않았으나, 1956년 1월 서요셉 신부가 천주교구라회를 창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동진료반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순회진료에 나서므로써 우리나라 구라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동진료반의 전진기지였다고 할 수 있는 서울에는 연구소의 설치를 보게 되었고, 옥천, 포항, 고성 등지에서는 오늘날의 종합병원인 성모병원 발족의 근간이 되었다.

신앙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주교 구라사업은 우리나라 나병관리사업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1966년 11월 27일 서요셉 신부의 선종을 계기로 마침내 한국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1967년 10월 10일에 창립된 한국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는 오늘날 103개 정착마을 가운데 4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연합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병원, 의원, 진료소, 요양원과 이동진료반은 우리나라 도처에서 많은 나환자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구호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베풀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주고 있다.

특히 천주교회의 구라주일 설정은 사랑의 나눔

의 실천이며 천주교 구라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릴리회, 라자로마을돕기회, 미라회, 상록회 등 후원회 조직 또한 우리 나라 나사업의 밝은 앞날을 약속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참 고 문 헌

國立小島病院 編, 1983. 《癩事業便覽》(補正版)
保健社會部, 1979. 《全國登錄癩患者 實態調查書》

柳駿, 1692. 《癩病》(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崔始龍, 1965. <嶺南地方 癩病의 疫學的 考察> 《大韓癩學會誌》第3卷 1號.

Choi, Shi-Ryong, *The Problem of Social Rehabilitation of Arrested Leprosy Patients in Korea*, International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Tokyo, Japan,

崔始龍, 1972. <한국 나사업의 전망> 《大韓癩學會誌》第8卷 1號

韓國民間癩事業團體協議會, 1983. 《韓國民間癩事業便覽》